

5. 태국. 아시아 최초 '설탕세' 도입

방콕지사

주요내용

▶ 태국인의 설탕 섭취량 권장량의 4배, 아세안 국가 중 비만을 2위

- 태국 국민의 설탕 섭취량은 하루 평균 설탕 26티스푼(약 104그램)으로 나타났으며, 이는 권장량인 6스푼의 4배가 넘는 양이다. 2015년 태국이 아세안 국가 중 비만을 2위 국가로 올라 충격을 주었는데, 과도한 당분을 섭취하는 태국인의 식습관이 그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.

▶ 태국, 설탕소비 억제를 위해 '설탕세' 도입추진

- 태국에서는 몇 년 전부터 설탕세 도입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으며 2016년 2월 태국 재정부가 설탕세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구상하기 시작했다.
- 태국은 올해 2017년부터 20% 상한세율로 설탕세를 도입할 예정이며, 의회의 승인을 얻은 후 왕실 내각에서 최종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. 최종 승인 후 180일 이후부터 발효될 예정이며, 제조업체에게는 2년의 유예기간이 주어질 예정이다.
- 이에 따라 태국은 아시아 국가 중 최초로 설탕세를 부과하는 나라가 되었다.

▶ 설탕세 도입으로 태국 음료가격 상승 예상

- 설탕세가 도입될 경우, 6~10g 이상의 설탕을 함유 한 음료의 소비자 가격은 20%, 10g이상의 설탕을 함유 음료의 소비자 가격은 25%의 상승할 것으로 예측된다.
- 현재 태국에서 녹차와 커피는 국내원료 사용 등을 이유로 소비세 면세 대상이었으나, 태국 당국은 설탕세를 포함한 새로운 소비세법 시행 이후에는 캔녹차, 캔커피에도 설탕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밝혔다.



| 태국 편의점 내 음료진열 |



| Healthier Choice 로고 수입 식품 |

▶ 국민의 건강한 식습관 형성을 위한 태국 정부의 노력

- 2014년 태국 국가식품위원회에서는 소비자들의 영양학적으로 좀 더 건강한 식품을 선택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하여 'Healthier Choice' 로고를 만들었고, 지난해 8월 31일부터 태국식품의약청(FDA)에서 Mahidol University의 영양진흥재단(Nutrition Promotion Foundation)에 인증 등의 업무를 위탁하여 추진하고 있다.
- 태국 내에서 당뇨병, 비만 등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면서 현재 자극적이고 단맛을 선호하는 국민의 식습관을 개선하고, 건강한 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태국 정부의 고민이 엿보인다.

* 출처 : www.khaosodenglish.com, www.bangkokpost.com

시사점

- 태국 정부는 '설탕세' 도입을 시작으로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. 일반 소비자들 또한 소득수준이 상승하면서 식품을 선택하는 기준이 맛이나 가격에서 '건강' 중심으로 점차 이동하게 될 것이다.
- 태국시장에 음료 수출 시 설탕 및 인공 조미료에 비율에 따라 설탕세가 상이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점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며, '건강기능성'이라는 세계적인 트렌드에 맞추어 설탕첨가량을 줄이거나 전혀 첨가하지 않은 건강한 음료를 개발하여 선보일 필요가 있다.